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71호
2016. 8. 1

정책동향

-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Ⅲ)
- 2016년도 추경예산, SOC 투자 확대 필요

시장동향

- 7월 CBSI, 전월 대비 13.4p 상승한 91.0 기록
- 한국은행, 올해 2.7% 경제 성장 전망

산업정보

- 상장 건설기업의 주요 경영 실적 추이 분석

건설논단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신간안내

- 「한강개발사」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III)¹⁾

- 민간 자본 중심의 중소·벤처 기업 자생력 강화 -

■ 중소·벤처 기업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촉진을 위한 대책 발표

-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 5월)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관련 대책을 보완, 추진하였음. 그 결과 벤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음.
 - 통계에 따르면 벤처 투자액은 2012년 1조 2,333억원에서 작년 2조 858억원으로 약 70% 증가하였음. 벤처 기업 수 또한 2012년 2만 8,193개에서 작년 3만 1,260개로 약 11% 증가하였음.
- 이에 정부는 제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벤처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3대 분야 45개 과제를 발표함.
 - 정부는 ① 벤처 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② 중소·벤처 기업 R&D 역량 강화, ③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위 대책은 건설산업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소·벤처 산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단지 조성, 신기술·자재 개발 등에 따른 파급 효과가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소·벤처 혁신 역량 강화 주요 내용

- 2015년 신규 벤처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지만, 민간 자본 참여는 2012년 58.7%에서 작년 56.4%로 비슷한 수준임. 이에 정부는 벤처 투자 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자금 조달 경로 다변화 등을 통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 벤처 펀드 민간자본 비중 확대를 위해 모태 지분에 대한 콜옵선제도 개선 등을 통해 모태 펀드 출자·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임. 또한 일반 법인의 벤처 기업 출자 및 재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 중임.
 - 기술혁신형 M&A 대상 요건 완화, M&A시 과점 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범위 조정 등을 통한 M&A 활성화를 계획 중임. 또한 창업 기업 자금 조달 채널 다양화를 위한 창업 기업 전용 주식 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본고는 2016년 7월 7일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총 3회로 나누어 게재하였음. 본고가 마지막 3회 차임.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²⁾의 도입 등을 통해 벤처 투자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 중임.
- 중소·벤처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R&D 역량 부족으로 투자 전망이 낮아지고 있음.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중소기업 연구 개발비는 2010년 8.6조원에서 2014년 11.2조원으로 연평균 6.9%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중소기업 R&D투자전망지수(RSI)는 2014년 113.4에서 2006년 102.1로 하락하였음.
 -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R&D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특례 조정, 대학·출연연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하여 R&D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R&D 성공 과제에 대한 자금·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R&D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함.
- 기존 정부 창업 지원 방향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지원에 치중되었음. 앞으로는 사업 초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본 글로벌 벤처 육성 환경을 중점 조성할 예정임.
 - 올해 창업 지원 사업 예산 5,764억원 중 글로벌 지원 예산은 206억원, 3.6% 수준으로 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및 해외 투자자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음.
 - 정부는 맞춤형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글로벌 TIPS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함. 또한, 글로벌혁신센터(KIC)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등재하며, ‘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연계 채널을 확대하고자 함.

■ 새로운 기술 개발이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 단품생산(單品生産)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자동화가 다소 늦게 진행되는 산업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알파고(구글사)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면서, 건설산업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업을 통하여 건설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의 상용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벤처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IT 단지, 아파트형 공장, 벤처 타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산업은 벤처기업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2) 발행 당시 전환 가격을 정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 시점에 전환 가격을 정하는 투자 방식으로, 오픈형 전환사채라고도 함.

2016년도 추경 예산, SOC 투자 확대 필요

-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경기 활성화 디딤돌 되어야 -

■ 정부는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2016.7.26)

-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국가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임.
 - 국회는 8월 중순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추경 예산을 의결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 활성화, 지방 재정 보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총 11조원 중 지출 확대 9.8조원, 국가 채무 상환 1.2조원
- 이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SOC 부문에 명시적으로 추경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음.
 - 다만,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차원에서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 정비(45억원) 등에 추경 예산을 편성

<표 1>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

(단위 : 조원)

예산 계획	금액	세부 내용
◇ 세출 확대	9.8	
① 구조조정 지원	1.9	■ 국책은행 출자 1.4 ■ 선박 발주 0.1 ■ 보증 및 보험 출연 0.4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9	■ 창업자금 0.3 ■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0.04 ■ 취업성공패키지 0.04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0.2
③ 지역경제 활성화	2.3	■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등 0.4 ■ 지역사업 활성화 0.9 ■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1.0
④ 지방 재정 보강	3.7	■ 지방교부세 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
◇ 국가 채무 상환	1.2	
계	11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7.22.

- 정부는 금번 추경 예산으로 6.3만개의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0.1~0.2%p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추경 예산 이외에도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 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도모

■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경기 활성화 고려해야

-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간 생산 유발 및 고용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그런데 금번 추경 예산은 경기 활성화보다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책 마련, 청년층 일자리 확충과 이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직접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잠재 성장률 제고 대책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2014년 3.3%을 제외하고는 2%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2016년 도에도 2% 중반대로 예상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2016. 1. 22)은 투자 부진, 노동 공급 정체, 생산성 정체 등이 지속될 경우 잠재 성장률은 2020년대 후반기에 1%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SOC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 활용해야

- SOC 투자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이며, 특히, 수입 유발 효과가 낮아 국제 수지를 방어하는 데도 효과적임.
-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의 SOC 투자 확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재정 지출 대상임.
 - 특히, 노후 인프라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보수 또는 성능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시급한 투자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박용석(산업정책연구실장 · yspark@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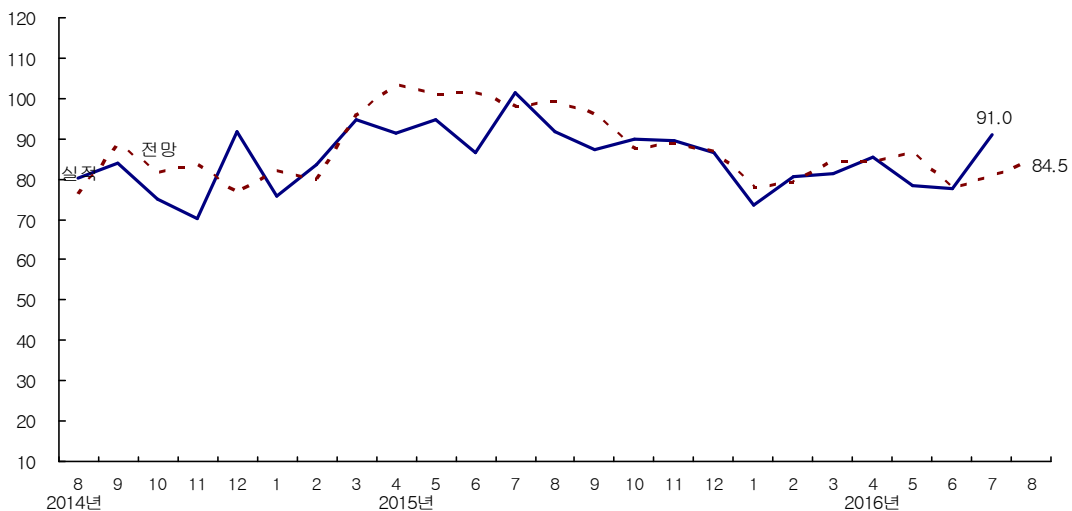
7월 CBSI, 전월 대비 13.4p 상승한 91.0 기록

- 3개월 만에 반등, 대형 및 중견 기업이 상승세 주도 -

■ 7월 CBSI, 2015년 8월 이후 11개월 내 최고치 기록

- 2016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4p 상승한 91.0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4월 85.6을 기록한 이후 5, 6월에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2개월 동안 8.0p 하락),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함.
 - 또한, 7월 CBSI 91.0은 2015년 8월(91.6) 이후 11개월 내 최고치로서 CBSI 지수 자체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통상 7월에는 혹서기와 장마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p 이상 CBSI가 상승한 것은 다소 이례적임.
 - 이는 CBSI가 지난 2개월 연속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작용했고, 신규 공사 지수 중에서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 지수가 전월비 10p 이상 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부문 수주에 개선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건설공사 기성 및 공사 대금 수금 지수가 일부 개선된 것도 7월 CBS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대형 및 중견 기업 지수 큰 폭 상승,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

- 기업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월보다 지수가 상승함. 특히 대형과 중견 기업의 상승 폭이 10p를 넘어 CBSI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대형기업 지수는 지난 6월에 2년 2개월 내 최저치인 76.9를 기록했는데, 7월에는 통계적 반등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3.1p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신규 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12.1p 상승한 103.0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3.4p 상승한 66.7을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지수가 개선되었지만, 지수가 여전히 60선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임.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5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5.6	78.5	77.6	91.0	81.1	84.5	
규 모 별	대형	100.0	100.0	92.3	100.0	92.3	92.3	100.0	100.0	83.3	76.9	100.0	84.6	100.0
	중견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85.3	90.9	103.0	93.9	87.9
	중소	64.6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5.2	63.3	66.7	62.5	6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8월 전망치, 7월 실적치 대비 6.5p 낮은 84.5

- 2016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6.5p 낮은 84.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가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8월에는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들면서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8월 CBSI는 7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한국은행, 올해 2.7% 경제 성장 전망

-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 호조로 6.7% 증가 예상, 건설부문의 역할 중요 -

■ 한국은행 올해 2.7%, 내년 2.9% 경제 성장 전망

-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함.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낮은 수치로,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4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 (상반기 3.0%, 하반기 2.4%)로 전망한다고 밝힘.
 - 지난 4월 19일 발표치보다 0.1%p 낮은 수치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세계 교역 감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국내 생산과 소비의 회복도 더디기 때문임.
 - 또한, 올 하반기에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영향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 최근 기업의 투자 감소로 설비투자 위축, 반면 건설투자는 확대

- 기존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설비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은 지난 4월에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발표치는 2.1% 감소하는 것으로 수정됨.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가운데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을 뜻함.
 - 한편, 올해 건설투자는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4.4% 전망치보다 2.3%p 높은 수치로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경제 성장 전망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	2016e)		2017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6	3.0(2.9)	2.4(2.6)	2.7(2.8)	2.6	3.1	2.9
민간 소비	2.2	2.7(2.6)	1.9(2.0)	2.3(2.3)	2.0	2.3	2.2
설비 투자	5.3	-3.6(-1.1)	-0.6(2.8)	-2.1(0.9)	4.5	2.1	3.2
건설 투자	3.9	10.1(6.7)	3.9(2.4)	6.7(4.4)	2.3	3.6	3.0
상품 수출	0.5	0.1(-0.3)	1.7(1.8)	0.9(0.8)	3.1	2.2	2.6
상품 수입	2.0	0.6(0.6)	0.1(0.2)	0.3(0.4)	3.0	1.1	2.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한국은행 4월 19일 발표치. ; 자료 : 한국은행(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2016.7.14).

■ 올해 건설투자 중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거용 건물 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국은행은 주거용 건물 투자가 지난해 주택 착공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해 76.5만호에 이어 올해에도 60만호 이상의 높은 인허가가 예상되는데, 인허가 물량의 착공 및 기성 진척으로 주거용 건물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 다만, 공급 과잉 우려로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소지가 일부 있음.
- 비주거용 건물 투자도 최근 저금리 환경에 상업용 건물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지난해 2.0% 증가한 73.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1/4 분기에도 7.6%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초과수익률(투자 수익률-정기예금 금리)이 올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말 4.2%p에서 금년 1/4분기 4.7%p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수익률 개선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물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토목 건설은 정부의 SOC 예산 규모 축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건설투자 추이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건설투자	4.5	0.3	2.3	-1.7	1.1	0.9	1.0	5.6	7.5	3.9	9.6	10.6
주거용 건물	18.6	9.2	13.8	4.9	11.1	6.1	10.1	15.3	24.4	14.2	22.2	-
비주거용 건물	1.6	1.2	5.2	2.4	2.7	0.2	-0.8	2.4	5.6	2.0	7.6	-
토목 건설	-3.2	-6.4	-9.2	-9.1	-7.3	-3.1	-4.4	0.8	-2.9	-2.5	-1.0	-

자료 : 한국은행(2016년 2/4분기 국민소득_속보, 2016.7.26).

■ 올 2%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건설투자 역할이 중요

- 2%대 저성장 국면 가운데,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GDP 성장률은 2015~2017년까지 2.6%→ 2.7%, → 2.9%로 3년 연속 2%대에 머물 전망이다.
 - 이러한 저성장 상황에서도 건설투자는 지속 증가해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3년래 최대치인 0.9%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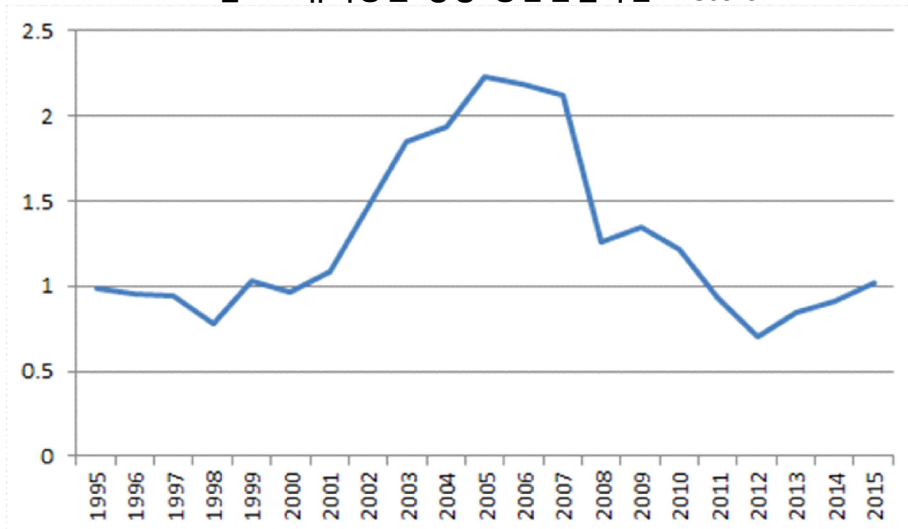
상장 건설기업의 주요 경영 실적 추이 분석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Z-스코어 변화 추이 -

■ 상장 건설기업 파산 예측 지수는 2008년 이후 지속 악화,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

-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종합건설업에 속한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Altman Z-score¹⁾ (파산 예측 지수)의 평균치는 2001년부터 상승하다가 2006년 하향세로 전환, 2008년에는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2년까지 악화된 파산 예측 지수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함.

<그림 1> 유가증권 상장 종합건설기업 Z-score



■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지표 하락세 뚜렷

- 2008년 기업의 유동성, 수익성, 영업효율성, 그리고 주가 정보를 반영하는 세부 지표들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인하여 상장 건설기업의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됨.

1) 1968년 Altman에 의해 개발된 공식으로, 높은 정확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업 파산 예측 모형임. Z-score이 높을수록 기업의 파산 위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됨. Z-score는 기업의 유동성(X_1 =순운전자본/총자산), 수익성(X_2 =이익잉여금/총자산), 영업효율성(X_3 =이자 및 세전이익/총자산), 주가정보(X_4 =주식의 시장가치/부채의 장부가치), 자산회전율(X_5 =매출액/총자산)의 다섯 개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됨. $Z\text{-score} = 1.2X_1 + 1.4X_2 + 3.3X_3 + 0.6X_4 + 0.999X_5$.

- 2007년 대비 2008년 유동성은 38.85%, 수익성은 55.4%, 영업효율성은 92.18%, 주가정보 반영 지표는 70.08%씩 각각 하락함.
- 특히 수익성은 2008년 이후 하락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음(-)의 값을 기록함. 상장 건설기업의 이익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2015년까지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기업의 자산회전율 측정 지표는 2004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자산회전율은 2007년 가장 큰 폭(-14.53%)으로 하락함.

■ 2013년 이후 상장 건설기업의 영업효율성, 자산회전율은 점차 개선

- 2013년 이후 파산 예측 지수의 꾸준한 상승은 상장 건설기업의 경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영업효율성과 자산회전율은 각각 2012년, 2011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주가정보 반영 지표도 등락은 있지만 2012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유동성과 수익성은 2008년 급격히 악화된 이후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임.
 - 중앙값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익성은 2014년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상장 건설기업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유동성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동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상장 건설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전략적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

- 파산 예측 지수로 볼 때, 2013년 이후 상장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 확보 등이 재무적 현안임.
- 건설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무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 전략이 필요함.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떠들썩하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제주 신공항은 4조 1,0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은 2020년경에 개항을 목표로 각 5,000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예상되고 있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공항의 공급은 필요한데 이들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걱정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처리 및 재활용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다. 19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인프라 시설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후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공공부문에서 조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정부 재정 지출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 23조 3,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8조 7,000억원으로 연간 6.8%씩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 인프라 공급 주체인 지자체도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많아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는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도 부채비율 축소와 같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의 대상 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3개 사업 외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법률에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자사업의 대상 시설을 제한함에 따라 민간의 창의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에도 제약이 있다.

또한 BTL 민간제안에 있어서 신규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 공공시설의 성능 개선도 대상 사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 노후 시설물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후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성능 개선에 대한 민자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확보와 활용을 위한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아시아경제 6월 24일)

박용석(산업정책연구실장 · yspark@cerik.re.kr)

『한강개발사(漢江開發史)』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강 개발 역사를 집대성한 『한강개발사』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역사적 사실과 함께 280여 컷에 달하는 한강 기록 사진도 담겨 있다. 총 595쪽으로 지은이는 이덕수 연구위원이다.



『한강개발사』는 고려시대 한강에 배다리가 존재했음을 밝히기도 하였고, 대형 건설사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강개발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서울시에서 예 두모포 자리에 세운 <한강의 사라진 섬 저자도> 안내문에는 현대건설이 저자도의 흙과 모래를 퍼내 압구정동에 택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저자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썼고, 『서울六百年史』 사도 유사하게 기록하였음. 그러나 192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지도 및 항공사진을 통해 저자도는 1950년대부터 이미 섬이 아닌, 압구정동 쪽에서 발달한 삼각주 모양의 모래벌판이었음을 밝혀냈음.
- 정자 천일정(天一亭)이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이 건립한 것으로 밝혀냈음.
- 독섬의 일부이던 잠실이 섬으로 변한 계기는 중종 15년(1520, 庚辰年)에 발생한 홍수였음.
- 16세기 초반(중종 31년, 1536년) 한강에 높이 최대 4.7m, 길이 1.4km로 추정되는 석축 댐이 건설되었음.